



김여울 기자 광주 FC 시즌오카 캠프를 가다

골키퍼 제종현

승부의 최전선 '제'가 있습니다

〈중현〉



지난해 번외 지명 선수에서 승격 주전 수문장 식단관리·체력훈련 10kg 감량... "시즌 자신"

절박함을 무기로 광주 FC의 수문장으로 우뚝 선 제종현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든다.

제종현에게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2014시즌 엔딩이었다. 챔피언 4위 확정으로 시작된 광주의 '겨울 잔치'는 경남과의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까지 계속됐다.

제종현은 고향에서 열린 경남과의 2014 시즌 K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부모님과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격을 확정지었다. 이날은 자신의 생일이기도 했다.

제종현은 "가족과 지인 100명이 넘게 왔다. 내 뒤에서 응원을 해주셨다. 최고의 기분이었다. 어머니께서 가장 통쾌해 하고 기뻐하셨는데, 그날 살면서 가장 많은 돈을 쓰셨을 것이다"고 웃었다. 승격을 완성한 수문장이 됐지만 제종현의 시작은 번외 지명 선수이자 3인자였다.

제종현은 "정말 절실하게 운동을 했다. 번외 선수라 계약기간이 1년이었다.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며 "고양과의 최종전 생각이 많이 난다. 4위가 걸린 경기였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경기가 됐다. 마지막에 공이 얼굴에 맞고 나갔는데 이 때 아픔보다는 희열을 느꼈다.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 결국 승격까지 이뤘다"고 말했다.

올 시즌을 준비하는 제종현의 모습은 지난해와 많이 다르다. 혹독한 식단 관리와 운동으로 10kg 가까이 몸무게를 줄였다. 그리고 장난기 가득하던 막내 골키퍼는 한층 어른스러워졌다.

제종현은 "지난해 처음으로 주전이 됐고, 클래식에도 도전하는 상황이 나를 절망하게 했다. 예전에는 힘든 훈련에 불평 불만이 많았다면 지금은 당연하게 하는 것이고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광양에서 하루 4번 훈련을 하고 저염식으로 식단 관리도 하고 올해 캠프가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다. 그런데 해야겠다는 생각뿐이다"고 밝혔다.

넓어진 시야와 여유도 지난해 캠프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것 중의 하나다. 제종현은 "지난해에는 후반에나 연습경기에 뭘 수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만 했다. 지금은 수비수와의 대화도 많아지고 전체적으로 경기를 보고 생각을 한다. 또 실수를 하더라도 도전을 하게 된다. 실전에서 하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연습에서 실수를 하면서 배우자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제종현이 말하는 골키퍼의 매력은 '책임감'이다. 실수를 감해야 하는 자리. 그만큼 책임감이 필요하고 책임감은 골키퍼의 매력이라는 것이다. 묵묵한 기다림이 좋다는 제종현은 고요한 2015시즌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제종현은 "나에게 공이 안 오게 하는 골키퍼가 가장 좋은 골키퍼다. 유일하게 수비수를 조절하고 경기장을 다 보는 자리이다. 나에게 공이 오지 않으면 최소한 비기는 경기다. 공을 막아냈다는 희열감 보다는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골키퍼의 매력을 느끼고 싶다"고 말했다.

선수들이 뭉쳐서 이뤄낸 승격. 가족같은 분위기로 결과를 냈던 만큼 다시 한번 광주의 강한 정신력과 힘을 결과로 보여주길 바란다.

제종현은 "정말 힘들었는데 선수들이 뭉쳐서 이뤄낸 승격이다. 다른 팀보다 승격에 강한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금도 그 분위기와 마음은 여전하다. 결코 광주가 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wool@kwangju.co.kr

'광주은행 역도부' 해체 되나

光銀 "규모 줄여 올 12월까지 운영"... 지역 체육계 반발

광주지역 유일의 기업체 실업팀인 '광주은행 역도부'가 해체 수순을 밟고 있어 지역 체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16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이달 초 광주시체육회에 공문을 보내 '역도부를 2015년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광주은행은 이어 '이후 종목변경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올해까지만 역도부를 유지하고 내년 해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광주은행은 내년 역도부 해체에 앞서 올해 팀의 규모를 크게 줄였다. 작년까지만 해도 선수 4명이었던 역도부는 올해 감독 1명, 선수 2명으로 축소됐다.

문제는 광주은행이 구두로 입단 약속을 한 선수마저도 최종 계약을 하지 않아 무적자 신세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해당 선수는 광주은행의 입단 약속을 믿고 있다가 이적시장에 나서지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선수는 조선훈 출신으로 제27회 전국남녀역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수확한 재원으로 알려졌다.

지역 체육계는 "항토은행인 광주은행의 이같은 결정에 큰 실망감을 느낀다. 특히 한 선수의 생명을 놓고 너무 가볍게 결정한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재신 광주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체육회와 역도연맹에서 광주은행장 면담을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거부하고 있다"며 "광주은행 역도부는 광주 유일의 기업체 실업팀으로 광주 브랜드 제고와 체육인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광주은행 관계자는 "계약 기간이 끝난 선수에 대해 재계약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선수단 축소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며 "다만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새로운 종목 육성을 검토하는 의견도 내부에 있다"고 밝혔다.

향토기업인 광주은행은 비인기 종목의 발전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지난 1999년 3월 역도부를 창단했다. 창단 후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광주의 명예를 드높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FC 시즌권 판매

푸짐한 선물도

최소년 5000원이다.

시즌권 구매자를 위한 푸짐한 혜택이 마련됐다. 광주의 승격을 기념해 제작한 1만5000원 상당의 쿠폰형 담요, 황송촌 양념갈비식사권(1인분)과 냉면 수육 짬뽕 쿠폰이 선물로 주어진다.

선수단 에스코트, 페널티킥 등 홈경기 이벤트에 우선 참여 기회도 제공된다. 또 홈 전 경기 관람 고객에게는 시즌 종료 후 별도의 기념품이 증정된다.

한편 시즌권 1호 구매자는 광주 구단주인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됐다. 윤 시장은 지난 13일 시청 접견실에서 정원주 대표이사, 박해구 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구매 행사를 가졌다.

윤장현 구단주는 "150만 광주 시민의 힘으로 기적과 같은 승격을 이뤄냈다"면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015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

Gunsan Saemangeum International Marathon




일시 : 2015. 4.12 (일) 08:00

장소 : 군산월명종합경기장

참가신청기간 : 2015. 1. 21 ~ 3. 20(59일간) | 마라톤사무국 : 063)465-7731 02)418-7881

국제공인대회 : Full, 10Km, 5km www.smgmara.com

■ 주 최 : 군산시육상경기연맹 * 군산시 ■ 주 관 : 전라북도육상경기연맹 * 군산시민체육회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 새만금개발청 · 전라북도 · 군산시의회 · 군산경찰서 · 군산소방서 · 군산시육상경기연맹

